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37호 [루계 제2663호]

주체 110
(2021)년 9월
11일
토요일
음력 8월 5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3돐 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 성대히 거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3돐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이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9월 9일 0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열병광장 주석단에 나오시었다.

순간 우리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김정은》, 《결사옹위》의 함성이 하늘 땅을 진감하고 환희의 축포가 황홀한 불꽃바다를 펼쳐며 연해연방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열병대의 환호를 울리는 열병대원들과 경축행사참가자들을 향하여 손저어 답례하시며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창건일을 맞이하는 온 나라 전체 인민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다.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어 존엄과 영광을 찾고 그 존엄을 역세게 키워온 우리 공화국의 73년의 역사를 뜻깊게 경축하는 인민의 기쁨이 끝없이 차넘치는 속에 국기제양식이 엄숙히 거행되었다.

《빛나는 조국》의 노래주악과 함께 21발의 레포가 발사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리일환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연설하였다.

이어 열병식준비검열이 진행되고 민간 및 안전무력의 장엄한 열병행진이 시작되었다.

주체 48(1959)년 1월 14일 로농적위군의 창건을 선포한 력사의 그날로부터 60여년간 마치고와 낫, 붓과 함께 총대를 역세게 틀어잡고 사회



를 충성으로 받들어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력사적전군을 무장으로 굳건히 담보해나가고있는 미더운 사회안전군장병들에게 관중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조선로동당의 자위적군사로서의 생활력을 과시하며 로농적위군의 기계화종대들이 자랑찬 진군화복을 펼치었다.

열병식이 끝나고 또다시 경축의 축포가 터져오르는 속에 김일성광장에서는 청년학생들의 야회가 시작되었다.

야회 및 축포발사가 끝나자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러 터치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뒤흔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열병의 환호를 울리는 군중에게 오래도록 손저어주시며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희생적인 헌신으로 전면적인 국가부흥의 새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만방에 빛내여가시는 만고절세의 영웅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3돐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자위의 굳건한 성세를 이룬 일심일체의 참모습과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노도와 같은 전진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본사기자

주의건설과 조국보위의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여왔으며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를 튼튼히 다지는데 커다란 공헌을 한 당의 혁명무장력, 주체적민간무력의 불패의 위용이 열병종대마다에 나타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 어떤 천지변속에서도 령도자와 사상과 뜻, 운명을 함께 하고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억척불변의 맹세를 안고 지축을 울리며 나아가는 튼튼한 열병종대들에 전투적 인사를 보내시었다.

민간무력종대들이 이어 광장에 들어선 사회안전군종대가 혁명선열들이 피로써 지킨 사회주의조국의 고귀한 전취물과 인민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가는 혁명의 붉은 방패의 위용을 과시하며 주석단앞을 보무당당히 행진해갔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당의 믿음직한 정치보위대, 혁명무력의 일익을 담당한 정예부대의 필승의 기개를 떨치며 나아가는 열병대오에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며 격려해주시었다.

일당백혁명강군인 인민군대와 함께 당중앙의 령도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공화국창건 73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로력혁신자, 근로자들을 만나시고 축하해주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9월 8일 공화국창건 73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로력혁신자, 근로자들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만나시고 따뜻이 축하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로력혁신자, 근로자들의 손을 반갑게 일일이 잡아주시며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에 공헌한 긍지와 자랑을 안고 공화국창건일을 맞이하는 그들을 축하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성스러운 애국의 력사속에는 지켜선 일터와 초소마다에서 근로의 땀을 뿌리며 나라의 재부를 늘이고 과학과 문화전선의 선두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치며 사회주의 문명의 개화기를 열어나가는 데 크게 공헌한 로력혁신자, 근로자들의 공적이 진하게 숨배여있다고 치하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역센 기상은 애국열의에 불타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의 고귀한 결정체이라고 하시면서 엄혹한 격난을 세대와 세기를 이어 뚫고 헤치며 백번을 일터서고 천번을 솟구쳐올라 사랑하는 조국을 떠받드는 강인한 인민의 불요불굴의 투쟁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주체조선특유의 국위이고 국풍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고 국은일, 마른일 가림없이 한몸을 내대며 조국의 근집을 하나라도 덜기 위해 헌신분투하는



애국자들이 많은것은 우리 당과 국가에 있어서 커다란 힘과 고무로 된다고 하시면서 로력혁신자, 근로자들을 사랑의 환眸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국을 위한 성스러운 복무의 길에서 뜻과 정을

같이하는 령도자와 전사들사이의 혈연의 화폭이 펼쳐진 당중앙위원회트락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함께 총성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기념촬영에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본부청사 정원에서 성대한 경축연회가 진행되었다.

연회에서는 축하연설이 있었다.

자애로운 아버이를 모시고 한식술의 정을 나누며 꿈같은 행복의 시간을 보내는 참가자들의 격정과 환희가 연회장에 차넘쳤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당이 국가의 초석으로, 대들보로 귀중히 여기는 로력혁신자,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삶의 지향과 꾸준한 실천으로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온 나라에 혁명열, 애국열을 고조시키는데서 기수가 되고 열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참가자들이 우리 공화국의 힘과 존엄을 더욱 키우고 부흥강국의 미래를 앞당겨주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수행에서 보다 혁혁한 위훈을 떨쳐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었다.

학습과 소년단조직생활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인 평범한 근로자들의 자녀들도 몸가깨이 불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한 로력혁신자, 근로자들과 함께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 초대된 소년단원들이 참으로 기특하고 대견하다고 하시면서 자식들을 나라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워가는 부모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부여주신 뜨거운 육친

의 정과 크나큰 믿음을 한생토록 잊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비약하는 위대한 김정은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 시대를 힘있게 추동하는 참다운 애국자, 열혈충신으로 삶을 빛내여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었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3돐 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 성대히 거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화국창건 73돛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일을 뜻깊게 맞이하는 온 나라 인민은 자주, 자립, 자위로 존엄 높은 강국건설의 새 력사를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최대의 경의와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 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공화국창건 73돛에 즈음하여 9월 9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숭고한 경의를 표시 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을 찾으신 원수님께서와 녀사께서는 한평생을 다 바쳐 진정한 인민의 나라,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 내 조국을 건설하시고 후손만대에 물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영생축원의 인사를 드리시였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건설사상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덕훈 내각총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박정천 당중앙위원회 비서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덕훈 내각총리,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와 존경하는 녀사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혁명발전의 새로운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빛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헌신분투하여 당과 인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화국창건 73돛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3돛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열병광장의 단상에 높이 모시고 공화국의 자주적존엄과 위상을 과시하며 승리자의 대행진을 거행한 무한한 긍지와 영예 속에 또다시 꿈만 같은 영광과 행복의 시각을 맞이하게 된 참가자들의 크나큰 격정과 환희가 촬영장에 차넘치

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도착 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로 사회주의조선의 국력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우리 공화국의 가장 영광된 시대,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목공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강순남 로농적위군 사령관이 영접보고를 올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열병의 환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열병비행 및 강하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전투비행사들과 락하산병들, 열병대원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그들의 성과를 치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모든 열병식참가자들이 앞으로는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마치고 낫과 붓을 억세게 틀어쥐고 조국수호와 사회주의건설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우리와 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김정은》, 《결사옹위》의 함성이 9월의 하늘가를 진감하며 메아리쳤다.

전체 참가자들은 당중앙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국가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양양의 시대를 열어나감으로써 고귀한 투쟁으로 쟁취하고 떨쳐온 공화국의 존엄과 영예를 끝없이 빛내어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3움을 성대히 경축



공화국은 성스러운 항일대전의 나날 백두 밀밭에서 창조된 영광스러운 투쟁전통을 뿌리로 하여 창건되고 줄기차게 계승하여온 우리 민족의 참다운 조국이다. 우리가 성스러운 투쟁 전통을 뿌리로 하여 창건되고 줄기차게 계승하여온 우리 민족의 참다운 조국이다.

하주로 존엄불은 강국

조선은 죽지 않았다. 일본놈과 싸워 우리는 승리한다. 민족해방투쟁사에 기록되어 오늘도 력력히 빛을 뿌리는 이 투철한 자주독립정신과 의지는 공화국의 훌륭한 력사에 구현되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자주의 나라를 동방의 일각에 우뚝 일떠세웠다.

자주! 이것을 떠나 존엄불은 공화국의 어제와 오늘, 래일을 말할 수 없다. 나라가 해방된 직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국내외에서 반일운동을 벌린 애국적인 사람들을 만나시었다.

그날 해방된 조국땅에 새 민주조선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런 뜻깊은 교시를 하시었다.

새 조국을 건설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훌륭한 인재를 기르는 것이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힘으로 건국하겠다는 립장에 확고히 서야 한다. 이러한 건국자세를 가져야만 나라의 완전독립을 달성할 수 있으며 우리 인민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강한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 수 있다.

이러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떤 민족이든지 나라의 완전독립과 부강발전을 이룩하려면 반드시 자기의 힘을 믿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력사에는 그 어느 나라 인민도 남에게 의존하여 나라의 진정한 독립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한 력가 없다고,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힘주어 교시하시었다.

우리는 과거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이 걸었던 그런 외세의존의 길을 걸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우리 인민은 오직 자신의 힘으로 새 나라를 건설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오늘 자주를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절세의 위인상의 성스러운 혁명성과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시대로 빛나고있다고 뜻깊게 말씀하시었다.

전후 큰 나라들이 국제적분업에 들지 않는 공화국의 《민족주의》니, 《교류주의》니 하고 비방하면서 이모 저모로 압력을 가해올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것이다. ... 자주는 력사의 정의이고 혁명의 승리이며 공정한 국제관계발전의 기초라는데 대한 선언이었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어느해 6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때 대국주의자들의 압력에 못겨 자주로선을 포기하고 세배에 들어갔더라면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울 수 없었으리라고 교시하시었다.

이렇듯 자주를 조선혁명의 생명으로, 국가건설의 근본초적으로 내세우시고 혁명과 건설을 우리 식으로 전진시켜오신 절세위인들의 탁월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공화국은 장장 70여년간 자주의 강국으로 세계만방에 그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칠 수 있었다.

공화국이 걸어온 길, 걸어갈 길은 오직 하나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열어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를 이어 이끌어 가시는 자주의 한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적대세력의 가중되는 압력행동에 대처하여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나가도록 하시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것이다. ... 자주를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절세의 위인상의 성스러운 혁명성과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시대로 빛나고있다고 뜻깊게 말씀하시었다.

이러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떤 민족이든지 나라의 완전독립과 부강발전을 이룩하려면 반드시 자기의 힘을 믿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력사에는 그 어느 나라 인민도 남에게 의존하여 나라의 진정한 독립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한 력가 없다고,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힘주어 교시하시었다.

우리는 과거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이 걸었던 그런 외세의존의 길을 걸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우리 인민은 오직 자신의 힘으로 새 나라를 건설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오늘 자주를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절세의 위인상의 성스러운 혁명성과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시대로 빛나고있다고 뜻깊게 말씀하시었다.

전후 큰 나라들이 국제적분업에 들지 않는 공화국의 《민족주의》니, 《교류주의》니 하고 비방하면서 이모 저모로 압력을 가해올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것이다. ... 자주를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절세의 위인상의 성스러운 혁명성과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시대로 빛나고있다고 뜻깊게 말씀하시었다.

이러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떤 민족이든지 나라의 완전독립과 부강발전을 이룩하려면 반드시 자기의 힘을 믿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력사에는 그 어느 나라 인민도 남에게 의존하여 나라의 진정한 독립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한 력가 없다고,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힘주어 교시하시었다.

우리는 과거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이 걸었던 그런 외세의존의 길을 걸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우리 인민은 오직 자신의 힘으로 새 나라를 건설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오늘 자주를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절세의 위인상의 성스러운 혁명성과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시대로 빛나고있다고 뜻깊게 말씀하시었다.

전후 큰 나라들이 국제적분업에 들지 않는 공화국의 《민족주의》니, 《교류주의》니 하고 비방하면서 이모 저모로 압력을 가해올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것이다. ... 자주를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절세의 위인상의 성스러운 혁명성과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시대로 빛나고있다고 뜻깊게 말씀하시었다.

기대 단계를 앞둔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련합군지휘관들과 함께 모스크바로 가신 일이 있었다. 그때 쓰말린의 위임을 받고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 겸 비서의 직책을 맡고있던 유다노브는 어버이수령님을 만나 뵈는 석상에서 항일무장투쟁을 격찬하면서 조선사람들이 나라가 해방된 후 몇해동안이면 독립국가건설을 실현할 수 있을것 같으냐 하고 질문을 드리었다.

늦어도 2~3년간이면 해낼것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에 그는 전혀 뜻밖이라는듯 한 표정이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그런 그에게 조선인민이 장기간의 항일무장투쟁과 민족해방투쟁을 전개하면서 정치적으로 크게 각성되고 단련되었다는 것과 그 과정에 자체의 힘으로 국가건설을 해나갈 수 있는 건설한 지도력있고 광범한 애국력량이 준비되었고 풍부한 투쟁경험과 무궁무진한 창조력, 능숙한 조직력과 강력한 동원력을 가지게 되었다는것을 설명해 주시었다.

그이의 말씀을 주의깊게 듣고난 유다노브는 해방후 조선인민의 건국투쟁에 어떤 형태의 지원을 주었으면 좋겠는가고 물음을 올리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소련(당시)이 도이칠란드와 4년동안이나 전쟁을 했고 앞으로 또 일본과도 큰 전쟁을 치르어야 하겠는데 무슨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겠는가, 도와준다면 물론 고맙겠지만 우리는 뭘수록 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일떠세우려고 한다.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는것이 장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력대적으로 사대주의가 망국의 근원

이었던것이다. ... 유다노브는 이 단서는 우연한것이 아니었다.

이후로도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발돋움하지 못할것이다. 유다노브는 이 단서는 우연한것이 아니었다.

이후로도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발돋움하지 못할것이다. 유다노브는 이 단서는 우연한것이 아니었다.

이후로도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발돋움하지 못할것이다. 유다노브는 이 단서는 우연한것이 아니었다.

이후로도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발돋움하지 못할것이다. 유다노브는 이 단서는 우연한것이 아니었다.

이후로도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발돋움하지 못할것이다. 유다노브는 이 단서는 우연한것이 아니었다.

이후로도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발돋움하지 못할것이다. 유다노브는 이 단서는 우연한것이 아니었다.

이후로도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발돋움하지 못할것이다. 유다노브는 이 단서는 우연한것이 아니었다.

이후로도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발돋움하지 못할것이다. 유다노브는 이 단서는 우연한것이 아니었다.

이후로도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발돋움하지 못할것이다. 유다노브는 이 단서는 우연한것이 아니었다.

이후로도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발돋움하지 못할것이다. 유다노브는 이 단서는 우연한것이 아니었다.

이후로도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발돋움하지 못할것이다. 유다노브는 이 단서는 우연한것이 아니었다.

이후로도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발돋움하지 못할것이다. 유다노브는 이 단서는 우연한것이 아니었다.

이후로도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발돋움하지 못할것이다. 유다노브는 이 단서는 우연한것이 아니었다.

이후로도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발돋움하지 못할것이다. 유다노브는 이 단서는 우연한것이 아니었다.

이후로도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발돋움하지 못할것이다. 유다노브는 이 단서는 우연한것이 아니었다.

이후로도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발돋움하지 못할것이다. 유다노브는 이 단서는 우연한것이 아니었다.

이후로도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발돋움하지 못할것이다. 유다노브는 이 단서는 우연한것이 아니었다.

이후로도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발돋움하지 못할것이다. 유다노브는 이 단서는 우연한것이 아니었다.

이후로도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발돋움하지 못할것이다. 유다노브는 이 단서는 우연한것이 아니었다.

이후로도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발돋움하지 못할것이다. 유다노브는 이 단서는 우연한것이 아니었다.

이후로도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발돋움하지 못할것이다. 유다노브는 이 단서는 우연한것이 아니었다.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주시려고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

주제46(1957)년 10월 중순 어느 한 과수농장을 찾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빨강계 익은 사과들이 가지가 휘어지도록 주렁주렁 열려있는 과수원의 정경을 만끽하게 바라보시다가 좋은 과수원에 왔다가 일 잘하는 농부들의 사진을 찍어가고 가겠다고 하시며 몸소 필요한 과원을 가꾸는 처녀들의 모습을 렌즈에 담으시었다.

철령아래 사과바다

강원도 고산평에는 눈부리 아득하게 펼쳐진 과수의 바다 고산과수농장이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의 발자취가 굽이굽이 어려있는 철령아래 펼쳐진 대규모과수농장은 세계 굴지의 청춘과원으로 그 이름을 떨치고있다. 이 고산과수농장의 력사의 첫페이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쓰시었다.

《바다 만 풍가》

주제103(2014)년 11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동해기슭에 자리잡은 어느 한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었다. 이날 물고기하루특정에는 회한한 풍경이 펼쳐졌다. 진공팩트를 타고 물보라를 흔들리며 쉬임없이 쏟아져내리는 물고기목포,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높아지는 물고기산... 볼수록 놀랍고 호숫하여 일군들이

위대한 정신을 지닌 인민

조선은 정신력이 강한 나라이다. 세계에서 조선만이 가지고 있는 《특허무기》가 무엇인가 그 누가 묻는다면 그것이 바로 정신력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인민들의 행복에서 더없는 기쁨과 보람을 찾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이시었다.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주시려고

세계에서 조선만이 가지고 있는 《특허무기》가 무엇인가 그 누가 묻는다면 그것이 바로 정신력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인민들의 행복에서 더없는 기쁨과 보람을 찾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이시었다.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주시려고

세계에서 조선만이 가지고 있는 《특허무기》가 무엇인가 그 누가 묻는다면 그것이 바로 정신력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인민들의 행복에서 더없는 기쁨과 보람을 찾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이시었다.

위대한 정신을 지닌 인민

조선은 정신력이 강한 나라이다. 세계에서 조선만이 가지고 있는 《특허무기》가 무엇인가 그 누가 묻는다면 그것이 바로 정신력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인민들의 행복에서 더없는 기쁨과 보람을 찾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이시었다.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주시려고

세계에서 조선만이 가지고 있는 《특허무기》가 무엇인가 그 누가 묻는다면 그것이 바로 정신력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인민들의 행복에서 더없는 기쁨과 보람을 찾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이시었다.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주시려고

세계에서 조선만이 가지고 있는 《특허무기》가 무엇인가 그 누가 묻는다면 그것이 바로 정신력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인민들의 행복에서 더없는 기쁨과 보람을 찾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이시었다.

위대한 정신을 지닌 인민

조선은 정신력이 강한 나라이다. 세계에서 조선만이 가지고 있는 《특허무기》가 무엇인가 그 누가 묻는다면 그것이 바로 정신력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인민들의 행복에서 더없는 기쁨과 보람을 찾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이시었다.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주시려고

세계에서 조선만이 가지고 있는 《특허무기》가 무엇인가 그 누가 묻는다면 그것이 바로 정신력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인민들의 행복에서 더없는 기쁨과 보람을 찾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이시었다.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주시려고

세계에서 조선만이 가지고 있는 《특허무기》가 무엇인가 그 누가 묻는다면 그것이 바로 정신력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인민들의 행복에서 더없는 기쁨과 보람을 찾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이시었다.

위대한 정신을 지닌 인민

조선은 정신력이 강한 나라이다. 세계에서 조선만이 가지고 있는 《특허무기》가 무엇인가 그 누가 묻는다면 그것이 바로 정신력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인민들의 행복에서 더없는 기쁨과 보람을 찾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이시었다.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주시려고

세계에서 조선만이 가지고 있는 《특허무기》가 무엇인가 그 누가 묻는다면 그것이 바로 정신력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인민들의 행복에서 더없는 기쁨과 보람을 찾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이시었다.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주시려고

세계에서 조선만이 가지고 있는 《특허무기》가 무엇인가 그 누가 묻는다면 그것이 바로 정신력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인민들의 행복에서 더없는 기쁨과 보람을 찾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이시었다.

위대한 정신을 지닌 인민

조선은 정신력이 강한 나라이다. 세계에서 조선만이 가지고 있는 《특허무기》가 무엇인가 그 누가 묻는다면 그것이 바로 정신력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인민들의 행복에서 더없는 기쁨과 보람을 찾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이시었다.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주시려고

세계에서 조선만이 가지고 있는 《특허무기》가 무엇인가 그 누가 묻는다면 그것이 바로 정신력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인민들의 행복에서 더없는 기쁨과 보람을 찾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이시었다.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주시려고

세계에서 조선만이 가지고 있는 《특허무기》가 무엇인가 그 누가 묻는다면 그것이 바로 정신력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인민들의 행복에서 더없는 기쁨과 보람을 찾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이시었다.

본사기자 박주혁

치욕과 고통, 불행으로 얼룩진 미군강점하의 76년

미군이 저지른 각종 범죄 20여만건

미국의 남조선강점사는 인류 역사에 보기 드문 가장 야만적인 범죄의 역사로 얼룩져 있다. 극도의 인간중요상과 야수성으로 길들여진 미군이 기여한 때로부터 수십년동안 남조선에서는 어느 하루도 피가 흐르지 않은 날이 없었고 인민들이 불행과 죽음을 당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인디언의 머리가죽 한장에 150US\$를 걸고 수백만명을 멸족시키기 위해 날뿜 살인마들의 후예들이 남조선에서도 인간살상을 제 마음대로 했다. 나물개는 소녀가 《쟁》으로 되고 나무하던 농민이 《노루》가 되고 길가던 학생이 《토끼》가 되는 등 남조선인민들이 미군에게는 인간과녀, 사냥대상이었었고 남조선땅은 《인간살상터》, 《자유사격장》, 《살인숙련장》으로 전변되었다. 1957년 군산소녀총격사건, 인천송유관어린이사살사건,

1958년 부평소년직송기적사건, 1959년 의정부녀인벙끼칠사건, 1960년 동두천녀인사살사건, 1962년 파주나무군사살사건, 1981년 송기란사살사건, 1992년 윤금이살해사건, 1997년 리태원햄버거가게살인사건, 2000년 리태원의국인전용클럽 녀종업원살인사건, 2002년 심미선, 신희순학살사건, 2013년 서울충기란동사건... 이것은 남조선강점 미군이 저지른 치명적인 범죄행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출판물이 《미군은 이남전체가 사격장이고 움직이는 사람들 모두가 표적인줄 아는지 특별한 사람을 쏘아죽이고있다》고 개탄한것은 미군에 의해 인간살상장으로 전락된 남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실증해준다. 몇몇전 남조선당국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해방후 남조선강점 미군이 저지른 살인, 강도, 강

간을 비롯한 각종 범죄는 무려 23만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미군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으며 치외법권적인 존재로 행세하고있다. 오래전에 심미선, 신희순 두 녀중학생을 백주에 길가에서 장갑차로 깔아뭉개고 살인자를 미군으로 빼들려 남녘인민들의 분노를 사고 온 남조선땅이 반미의 초콜바다로 되었던것은 세간에 잘 알려졌다. 장구한 인류력사에는 강점군에 의한 범죄행위가 수없이 기록되어있다. 하지만 남조선강점 미군처럼 인민들에게 그토록 잔인하고 악독하게 불행과 고통, 죽음을 강요한 범죄집단은 동서고금에 없을것이다. 강도가 살판치는 곳에서 사람들의 피가 마를새 없듯이 미군이 남조선에 남아있는 한 남조선인민들이 당하는 불행과 재난은 절대로 가서질수 없다. **본사기자 주광일**



1957년 7월 인천에서 퇴방유도적으로 몰아 어린이를 학살한 미군야수들



2002년 6월 미군장갑차이 찢어죽은 두 녀학생, 미군의 범죄만행으로 불구가 된 남조선주민들

《과연 누구를 위한 (군사동맹)인가. 자국의 군사적목표와 이익을 위해 점령지민중의 혈세를 불법강탈하고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이것은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인사가 내놓은 울분의 목소리이다. 미군에 있어서 남조선은 한갓 저들의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약탈의 대상이고 마음내키는대로 빼앗아먹을 수 있는 식민지일 뿐이다. 저들의 침략적목적에 따라 남조선을 장기간 강점하고있으면서도 수만명 미군의 유지비용도, 남조선전역에 등지를 틀고있는 수많은 미군기지와 군사시설들에 대한 관리비용도 다 남조선당국에 압을 가해 남조선인민들의 혈세로 충당하고있다. 그 엄청난 돈도 모자라 미국은 남조선을 강박하여 《방위비분담금》규모를 해마다 늘여왔으며 그렇게 강탈한 혈세로 미군기지를 확대하고 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는 한편 박물관, 식

당 등 건설비용을 벌려놓고 리자놀이까지 하면서 저들의 배를 불려왔다. 이렇게 남조선인민들의 혈세를 《용돈》처럼 몰수스소 비하하면서도 《안보유익증착》을 운운하면서 남조선이 《방위비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눈을 부라리며 강박을 하는 미국이다. 하여 지난 2009년에 7 600억원이었던 《방위비분담금》이 해마다 늘어나 올해에는 1조 1 833억 원에 이르렀으며 2025년에는 5 000억원으로 늘어날것이라고 한다. 남조선인민들이 말하듯이 미국은 《동맹국》이 아니라 강도이다. 불행척이 남의 집에 뛰어들어 자기 《덕》에 편안함을 알라고 눈앞을 부라리고 그 대가로 돈을 더 내라고 고아대는것이야말로 미국식오만성의 극치이며 이러한 횡포는 오직 남조선에서만 볼수 있는 기막힌 현실이다. 사실들은 미국이 운운하는 남조선과의 《동맹》이란 등 쓸어주며 간이고 쓸개고 다 뺏아먹으려는 지배의 율가미, 약탈의 그물이 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언제까지 침략자, 남강도에게 땅을 메주고 주권을 빼앗긴것도 모자라 혈세를 섬기고 뒤처닥거리까지 도맡아하는 현대판노예노릇을 해야 하는가. **자은혜**

남조선은 미국에 군통수권마저 빼앗긴 불우한 처지에 있다. 조선전쟁이 시작되어 한달도 안된 1950년 7월 15일 미국과 리승만 《정권》사이에서 남조선 《특혜공군작전권이양》에 관한 공한》(《대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 의하여 남조선군은 전부 《유엔군사령부》의 작전지휘하에 넘어갔으며 그 통수권은 《유엔군사령관》의 간관을 쓴 미국동군사령관의 손안에 장악되게 되었다. 남조선미국 《연합군사령부》라는것도 명색이 《연합사령부》이지 실지에 있어서는 남조선군에 대한 통수권을 미국의 손안에 철저히 장악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도 남조선군대에 대한 실질적인 통수권은 미국이 들어주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의 한결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직작전통제권을 미국이 들어주고 있다. 미군제무기로 무장하고 미국의 승인이 없는 단 한명도 제 마음대로 움직일수 없는 군대, 미국의 대조선전략과 아시아지배전략 실현에 복무하는 군대가 다름아닌 남조선군이다. 현실은 남조선에 대한 미군의 강점이 계속되는 한 남조선군은 언제 가도 식민지고 남조선군의 수척스러운 오명을 벗을수 없으며 미국에 종속된 남조선의 처지도 달라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박철남**

전을 총괄하는 부사령관을 맡게 되어있다는 사실 등은 미국이 말하는 전직작전권반환이라는것이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미군제무기로 무장하고 미국의 승인이 없는 단 한명도 제 마음대로 움직일수 없는 군대, 미국의 대조선전략과 아시아지배전략 실현에 복무하는 군대가 다름아닌 남조선군이다. 현실은 남조선에 대한 미군의 강점이 계속되는 한 남조선군은 언제 가도 식민지고 남조선군의 수척스러운 오명을 벗을수 없으며 미국에 종속된 남조선의 처지도 달라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박철남**

미군에 빼앗긴 군 통수권

한사코 넘겨주지 않고있지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최근 미국이 《유엔군사령부》의 권능을 확대하여 남조선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는 사실, 앞으로 내오려고 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에서 미군대장이 작

남조선언론이 주장 《미국을 믿지 말라》

얼마전 남조선언론 《민플러스》는 《미국을 믿지 말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즘 미국을 못 믿겠다는 말이 류행처럼 번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야밤도주하다싶이 매주한 미국을 보고 하는 소리다. 미국은 자기 리익밖에 모르고 믿을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이 삼시간에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 한국과 아프가니스탄은 다르다. 아프가니스탄은 20년

환경 파괴 범죄의 온상 - 미군기지

남조선에서 곳곳에 독가 시마냥 박혀있는 미군기지들에 의해 인민들은 기름진 땅과 삶의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산천마저 생기를 잃고 죽어가고있다. 미군의 환경파괴범죄로 하여 미군기지와 그 주변은 완전한 오염지대, 공해지대로 화하였다. 미군기지와 그 주변지역은 강점군이 내버린 폐유와 각종 화학물질, 중금속 등에 오염되어 풀 한포기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불모지로 변하였고 주변의 강하천 역시 먹는물은 물론이고 농업, 농업용수로도 리용할수 없는 지경이라고 한다. 뿐만아니라 미군은 고염제를 비롯한 독해물까지 살포하였고 심지어는 극악무도한 세균전설

범까지 감행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있다. 올해 남조선의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군으로부터 넘겨받은 대구의 직송기차량과 남강원도 사격장의 환경오염은 매우 심각했으므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의 직송기차량장은 1급발암물질인 비소, 디옥신, 염화비닐, 클로르포름, 벤젠 등의 독성물질에 오염되어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은 정상기준(10만분의 1)을 훨씬 초과했다고 한다. 남강원도 녀령군의 사격장에서 지하수에 벤젠, 에틸벤젠, 나프탈렌, 톨루올 등의 독성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지역주민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도

51배로 초과되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미국은 저들의 환경파괴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불평등한 《행정협정》을 내두고 그 비용을 고스란히 남조선에 떠넘기고있다. 단순히 한세대만 경과하는 땅이 아니라 자자손손 이어갈 삶의 보금자리, 귀중한 재부인 강토가 강점군, 침략자에게 빼앗기고 그들이 배설한 독성물질에 의해 황폐화되고있는것이다. 해방은 삼천리에 함께 찾아왔으나 미군의 강점으로 자주, 민주, 희망의 봄을 빼앗긴 남조선에서 《지금의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의 구절이 오늘날 슬픈 메아리로 울리고있다. **본사기자 안권일**



랑립될수 없는 평화와 미국

제목은 보면 이런 의문이 떠오를수 있다. 평화와 전쟁이 공존할수 없는것이 아닌가. 그럴수 있다. 자료에 의하면 B.C. 3200년부터 1964년까지의 5 164년 기간에 세계적으로 도합 1만 4 513차례의 전쟁이 일어났고 인구는 329년동안만 평화롭게 살았다고 한다. AP통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0차례의 국부전쟁이 일어났다고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력사는 전쟁의 역사, 평화에 대한 갈망의 역사라고도 말할수 있다. 1950년 미중유의 조선전쟁을 겪었으며 총포성 울리지 않는 반세기이상의 긴장속에 불안과 공포를 사는 우리 민족은 서슴없이 락인한다. 미국은 곧 전쟁, 전쟁은 곧 미국이라고.

1945년 9월 8일, 해방의 감격으로 뿔뿔이던 남조선에 미강점군이 기여들었다. 미국의 룹락으로 분열된 땅에서 미국이 강요한 조선전쟁이 일어났으며 그들의 강권과 팽창야욕이 분열의 70여년을 전쟁위험의 날과 달로 이어놓았다. 지금도 미군이 강점한 조선반도의 남쪽에서는 위임없이 《전쟁광상곡》이 울린다. 조선반도의 북쪽을 향한 땅크소리, 비행기소리, 총포소리 등이 불협화음을 이루면서 새로운 전쟁유령을 부른다. 미군이 깔고뭉개는 기지들마다에서 산천이 황폐화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있다.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의 절규는 《미

국없는 시대》, 《미국없는 땅》이다. 민족성원 누구나 미국은 전쟁의 온상, 평화파괴의 주범, 통일의 기본장애물임을 똑똑히 인식하고있다. 누군가가 《미국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것》이라고 한것이 정말 좋았다. 《서민》호의 침입으로부터 침략자로 인식된 미국은 근대와 현대를 거치며 악의 화신, 불행의 화근으로 우리 민족의 뇌리에 박혀있다. 미국은 곧 전쟁이고 평화와 미국은 량립될수 없기에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우리 민족은 목소리높쳐 웨치고 또 웨치고있다. -미국은 이 땅에서 당장 물러가라!- **본사기자 김정혁**

침미선, 신희순사망 | 불을 맞으며 얼린 미군모함미초물바다